

칠레, 경제 활동 지수 4개월 연속 하락…고금리에 투자 및 생산 둔화

칠레 Reuters, Nasdaq News, BNN Bloomberg

2023/07/05



□ 칠레 경기 활동 지표가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둔화세 지속

- 최근 칠레 중앙은행(Banco Central de Chile)은 2023년 5월 기준 IMACEC(Monthly Economic Activity Index) 지수를 발표함
- 칠레 연간 GDP 측정 항목의 90% 이상을 담고 있어 실제 GDP의 근사치이자, 경기 활동 수준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IMACEC 지수는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2.0% 하락했음
- 또한, 지난 4월과 비교해서도 0.5% 낮아지면서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

□ 칠레 핵심 산업인 광업 부문의 생산량 감소가 경기 활동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

- 칠레 중앙은행은 광업 부문 부진이 IMACEC 지수 4개월 연속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
- 칠레의 최고 핵심 수출품이기도 한 구리 생산량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4% 감소했으며 제조업계의 생산량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면서 IMACEC 지수 하락이 가속된 것으로 추정됨

□ 칠레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,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증대

- 코로나 19 팬데믹 직후 회복하던 칠레 경제는 고(高)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자 회복 모멘텀이 급속히 약화되었음
-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금리로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음
- 5월 IMACEC 지수가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, 곧 있을 7월 금리 정책 회의에서 칠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1.25%에서 10.25%로 1.0%p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